

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 노동자 규제 강화 배경과 전망

작성자 : 손성현 연구원

작성일 : 2013년 8월 23일

■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(Nitaqat)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.

- 사우디 노동부는 2011년 산업 분야 및 고용 규모에 따라 자국민 의무 고용비율을 정하고 이것에 대한 이행 정도에 따라 제재와 유인책을 부과하는 니타카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이 제도를 1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음.¹⁾²⁾

-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류허가 규제 및 불법 노동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 및 작업장 이탈이 발생함.

○ 사우디 정부는 2013년 4월부터 3개월간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처벌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 적발된 불법 노동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.³⁾

- 또한 사우디인을 사업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, 미용실, 식료품 가게 등의 불법 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음.

■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자 규제 강화 배경으로는 기존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 (Saudization)의 실패, 높은 사우디인 실업률의 지속으로 인한 사회불안 등을 들 수 있음.

- 1994년 최초로 도입된 사우디인 우선 고용정책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사우디 내 기업 인력의 75% 이상을 자국민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.

-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고용 비율과 정부의 느슨한 감독으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었음.

- 사우디의 실업률은 2001년 8.1%였으나 2011년 12.4%까지 증가하였으며, 이 중 19~34세

1) 니타카트는 아랍어로 범주, 범위라는 의미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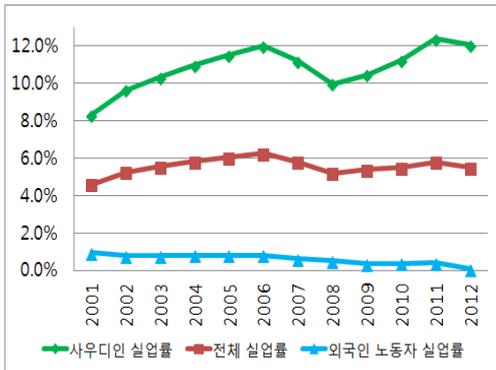
2) *Arab News*. 2013. "More jobs for Saudis as Nitaqat applied to SMEs." (March 13th)

3) 7월 2일까지로 예정된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예기간은 11월 4일까지로 다시 연기되었음.

사이의 실업인구가 전체 실업인구의 92.5%를 차지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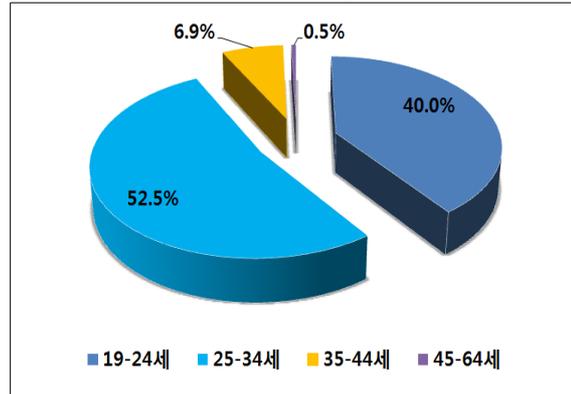
- 특히 아랍의 봄 이후 높은 청년실업이 사회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자 사우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음.

그림 1.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업률 추이



자료: CDSI(2013)참고로 저자 작성.

그림 2. 사우디인의 연령별 실업인구



자료: CDSI(2013)참고로 저자 작성.

■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 및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 강화로 기업의 사업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상황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.

- 사우디 노동부는 올해 초 불법 외국인 노동자 및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외국인 고용 비율이 높은 건설 및 제조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.⁴⁾
- 특히 건설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로 인해 4~7월 사이의 공사를 대부분 진행하지 못해 공기 차질이 우려됨.⁵⁾
-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비율(53.4%)이 높은 사우디에서 지나친 규제 강화로 외국인의 이탈이 일시적으로 급증한다면 이것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사우디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음.⁶⁾

〈자료: Zawya, Arab News, EIU〉

4) 약 80%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2,000리얄(533달러)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반면, 사우디인의 최저 월급은 3,000리얄(800달러)이며 생산성도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현저히 낮음.

5) EIU. 2013. *Country Report: Saudi Arabia* (July), p. 24.

6) EIU. 2013. "King announces extension for expatriate visa amnesty" (July 3rd).